

실내공간에서의 색채연출

안 옥 희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1. 주거공간과 색채

주택 내에서는 인간생활의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작업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색채조절이 필요하다. 주택 내부의 여러가지 용도의 공간들은 단독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복합적인 용도로 겸용되고 있어 그 공간의 다양한 생활 행위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색채계획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주택은 어떤 하나의 표준이 정해지기 보다는 사용하는 거주자의 취향이 강하게 표출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에 한정하여 색채계획을 하게 되면 단조롭고 개성이 없는 공간으로 되기 쉬우므로 공간 하나 하나의 기능적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주택의 전반적인 색채계획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각 공간의 휘도의 균형에 대한 것으로서 인접된 공간의 휘도대비를 크게 하면 상당히 불쾌하고 시각조건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와의 연결부분인 현관 부분의 경우 외부와의 휘도 대비를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조명과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1) 주택의 색채조절

인간은 색에 대해 다른 어떤 동물보다 민감하여

물리적 생리적 자극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색채의 좋고 나쁨은 건전한 심신의 유지, 작업능률의 증진, 위험방지 등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주택의 색채조절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표 1>과 같다.

2) 주택의 배색

주택의 전반적인 배색은 너무 대비가 강하지 않은 온화한 배색을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외부의 색채에 있어서 땅에 가까운 부분은 더럽혀지기 쉬우므로 어두운 색이 좋으며 상부 벽보다 명도가 2정도 낮은 것이 좋다. 색상은 동색계 혹은 무채색계를 쓰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명도는 5.5~6.5로 한다.

창살이나 문살은 벽에 비해 어두운 것이 좋으므로 명도가 5~6.5 정도가 좋다. 내부의 경우 큰 벽의 천장은 명도 8이상, 벽면은 명도 6.5~8, 바닥은 명도 5~7로 하여 난색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벽을 따뜻한 색으로 하였을 때는 가구를 무채색으로 하는 것이 좋고 벽을 차가운 색으로 하였을 경우 가구를 난색계통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밖에서 실내를 볼 때 창을 통한 실내의 색은 적당한 명도차를 갖게 된다. 또 벽의 명도가 낮은 경우 가구 등은 밝은 색으로 한다. 실내의 각 부분의 색은 개인적인 취향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조를 갖도

표 1. 주택의 색채조절시 주의사항

항 목	주 의 사 항
공간의 용도에 따른 색채선택	공간은 용도에 따라 매우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실이나 식당처럼 은 가족이 모이는 공격적인 공간과 침실이나 서재 등의 개인중심의 사적인 공간도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각 실의 기능에 따른 분명한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각 공간사이의 조화 고려	각각의 공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거전체로서의 색채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되고 만다. 하나의 실내에서 색채가 아름답게 조화되고 각 공간들 상호간의 색채 또한 아름답게 조화됨으로써 전체 주거에 풍부한 색채조절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간의 밝기나 조명을 고려한 색채계획	빛이 없으면 아무리 조화로운 색채계획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조차 없다. 또 방의 밝기나 조명이 다른 경우에도 색채가 전혀 다른 색으로 오인될 정도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공간의 밝기나 조명조건을 고려한 색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료의 색을 고려한 색채계획	너무 인공적인 색채환경 속에서는 곧 싫증을 느끼고 지루해지므로 소재가 갖고 있는 재질색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연색만을 강조하더라도 색채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재료에 따라 같은 색도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색면의 크기를 고려한 색의 선정	색채를 결정할 때는 대개는 작은 색견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큰 면에 칠할 경우는 확대됨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색채란 색면이 커지면 진한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벽이나 천장 등은 색견본(color sample)보다 다소 옅은 색으로 선택하는 편이 무난하다.
계절에 따른 색채선택	실내공간의 색채를 계절에 따라 변화시키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 커튼이나 깔개를 교환하는 것도 좋으며 벽지를 새로 바르거나 벽을 새로 칠하는 것도 좋다. 또 의자나 쿠션 등과 같이 가구나 소품들을 바꿔줌으로써 방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다.
주조색 결정과 색 수의 제한	작은 방에 여러 가지 색을 쓰면 작은 방이 더 작게 보이고 방의 분위기가 혼란스럽게 된다. 한색이든 난색이든 주조색으로 사용되는 색을 결정한 후 그 농담으로 배색하고 보색으로 액센트를 주면 무난한 배색이 된다.

록 하는 것이 좋고 기능면 또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부엌과 식당

부엌은 주택내에서 가장 설비가 집중된 곳으로서 주부 가사노동의 중심이 되며 여러단계의 조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충분한 조도와 균등한 휘도분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엌은 주택 내의 다른 공간에 비해 창문도 작고 싱크대 등으로 요철 부분이 많아 빛의 분포가 좋지 않으므로 비교적 밝은 계통의 색을 필요로 한다.

부엌 상부벽이나 천장은 거의 흰색에 가까운 밝은 색을 사용하며, 바닥면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도 8이상으로 한다. 또 좁은 부엌에서는 상호반사를 고려하여 채도를 낮게 하는 것이 좋으며 색상은 무채색, 옅은 크림색, 남색(PB) 등으로 하는 것이 좋다. 찬장 내부도 밝은 무채색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 흰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서는 부엌과 식당을 겸해서 사

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식탁과 의자의 색채도 같이 고려해서 배색하여야 한다. 식품은 색상이 빨간색, 노란색, 녹색 계열이 대부분이지만 신선도와 요리의 정도를 색깔로서 구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리대의 색깔은 무채색(N) 계열이나 채도가 매우 낮은 (채도 1이하) 것을 선택하며, 무늬가 없는 색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요즘에는 위생상의 이유로 스텐레스 계통의 상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스텐레스의 금속면은 반사광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광원의 위치를 잘 조절하고, 확산광을 사용하여 눈부심을 막아야 한다.

조리대 전면의 벽은 조리작업의 주변 시야가 되도록 명도 8정도, 채도 2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조리대 앞에 창문이 있을 경우 낮에는 창면의 눈부심이 생기지 않으나 밤에는 불빛이 반사되므로 커튼을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탁에 놓여진 음식물은 흰 쌀밥을 제외하면 주된 색상이 YR~Y계통이므로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인공조명의 경우에는 백열등이나 주광색

형광등이 좋다. 식사를 하는 식당의 경우 난색계의 색상으로 하고, 식탁은 음식물의 색과 대비의 효과가 있는 색상(G, BG, PB)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욕실과 화장실

욕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는 충분한 조도의 확산 조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벽면은 명도 8이상, 바닥면은 명도 6~7, 천장은 흰색이 좋다. 욕실의 문은 전체 벽 면적에 비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벽면과 같은 정도의 명도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벽면이나 바닥면 모두 5BG~2.5PB 정도가 피부색과의 대비가 좋고, 따뜻한 느낌을 원하는 경우에는 2.5YR~7.5YR 정도가 좋다. 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채도는 벽면을 1정도, 바닥면은 2이하의 저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실의 경우에도 욕실에 준해서 배색계획을 하되 오염된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의 확산광을 필요로 한다.

(3) 거실

가족들의 모여 단란한 생활을 영위하는 거실의 경우 개인이 앉는 방향은 각각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방향성이 작은 확산광이 필요하다. 또 상대방의 얼굴에 그늘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위에서 비스듬히 퍼지는 확산광이 바람직하며, 실내의 색채계획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천장면, 벽면, 바닥면의 순서로 명도를 낮추어 각 면의 반사광이 아래로 향하여 분포되도록 한다.

(4) 침실

주택의 침실은 항상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침대 누었을 때 시야가 되는 천장이 꼭 흰색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침대에 누었을 때 천장의 조명기구가 눈에 들어오면 눈부심을 가져오므로 조명기구의 배치에 주의하여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간접조명방식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침실의 색채계획은 사용자의 연령, 성별, 성격 등과 많은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어린이 방과 공부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한 공간에서

겸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한 색채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업무용 공간과 색채

현대의 사무실은 각종 사무용기기들의 보급과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의 보급으로 다양한 사무공간의 연출이 가능해졌다. 이들 업무공간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① 업무 부분(사무실, 회의실) ② 이동 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③ 설비 부분(화장실, 세면실 등) ④ 서어비스 부분(교환실, 관리사무실, 기계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색채계획에 있어서 서어비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련의 공간이므로 함께 취급하여야 하며 서어비스 부분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업무 부분은 안정적이며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시선계획을 통하여 개구부나 조명기구의 배치 및 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 각 벽면이나 가구의 색채는 가능한 한 휘도대비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 부분은 사람의 움직임이 많은 곳으로 어느 정도 강한 색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색상은 현관이나 홀 주변은 난색계가 좋으며 복도나 계단의 경우 조도의 부족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벽이나 바닥면보다 높은 명도의 크림색계통의 색상을 사용하면 좋다. 설비 부분은 청결감이 있고 더러움이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으로 하여야 한다. 서어비스 부분은 전체적으로 더운 방이 많고, 또 더러워지기 쉬운 장소이므로 더러움을 타지 않는 한색계통이 좋으나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기기 등의 운용자의 위해방지(危害防止)에 중점을 두어 안전색채를 사용하는 등 위해방지를 위한 색채계획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 부분(일반사무실, 회의실)

많은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일반 사무실의 경우 작업의 흐름에 적절히 가구 등을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실내의 어느 곳에서나 거의 같은 밝기의 작업면 조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흔히 오랜시간을 사용하는

공간은 시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녹색이나 황갈색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색상은 안정적이기는 하나 활기를 얻기 힘들므로 공간 크기를 고려하여 색상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내용이 집중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한색을,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에는 난색을 택하는 것이 좋다.

(1) 창면의 처리

태양의 직사광을 피하고 동시에 빛을 사무공간 깊이까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루우버, 블라인드, 유리블러 등이 창면에 사용된다. 또 일의 성질상 창문을 향해야 할 경우 창면의 휘도를 낮추기 위한 특수한 루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각 면의 색채

사무실 내에서는 책상을 내려다 보고 앉아 상당히 작은 문자의 서류를 읽는다든지, 쓰는 작업이 계속되므로 이러한 작업을 해도 피로하지 않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휘도대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책상의 경우 사용자의 기호, 위치, 가구색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벽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7.5GY~2.5G(중성색계)나 10B~2.5PB(한색계) 정도가 좋다.

바닥색채는 흔히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두운 색상을 택하나, 작업대 표면과 바닥사이에 과도한 휘도대비가 유발될 정도로 어두우면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는 나무, 가죽, 석재와 같은 재료의 톤으로 결정하면 거부감이 없다. 반면에 검정, 흰색, 금속색 등은 업무공간의 주조색으로 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회의실

회의실에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실내의 어느 면이나 극단적으로 휘도대비가 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창면에는 두꺼운 커튼을 사용하여 영상기기의 사용할 때 개폐가 가능토록 조치한다. 천장의 조명도 참석자의 손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테이블 주변에 광원을 돌아가면서 배치하는 것이 좋다.

2) 이동 부분

(1) 복도

사무실 창면으로 들어 온 자연광이 복도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복도와 사무실 사이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복도는 어둡게 되기 쉬우므로 각면의 색채는 바닥면이나 벽면을 모두 밝은 색으로 도장하여 어두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크림색계통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2) 계단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눈의 정면으로 광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위치에 주의한다. 복도부분과 평균조도가 같은 정도로 하고 각 면은 밝은 색으로 한다.

(3) 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엘리베이터의 내부는 좁은 공간이므로 상호 반사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벽의 채도는 매우 낮은 저채도로 한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크림색 계통이 좋다. 천장은 흰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면은 명도 6~7 정도의 밝은 색으로 한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내측벽과 같이 취급하고 외측은 엘리베이터가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강한 색으로 한다.

에스칼레이터의 경우 계단은 안전하게 타고 내리도록 밝은 재료를 사용하고, 승강기의 고정부분과 움직이는 부분의 색을 다르게 하여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한다.

3. 학교공간과 색채

여기서 주된 대상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로서 학교의 색채계획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되어야 한다. 교실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주로 시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건물 전체의 색채계획도 과거의 흰벽, 흰 천장, 칠판이라는 배색은 이제 지양되고 변화가 많고 즐거움과 밝고 명랑한 기분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공간은 기능별로 분류하면 교실 부분, 강당, 체육관 등의 공용 부분, 통로 부분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실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교육을 받는 장소로서 밝고 사물을 보기 쉬운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안되며 수업형식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야 한다. 특히 특별교실의 경우는 그 교과내용에 적절한 색채와 조도가 요구된다. 공용 부분의 경우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색채계획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통로 부분의 경우는 끊임없이 학생들이 움직이게 되므로 색채계획도 보다 자유스럽고 대담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동과 동사이의 연결통로 부분은 공간간의 이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저분해지기 쉬운 현관 출입구나 신발장 부분, 세면실 등은 밝고 깨끗한 느낌이 들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교실 부분

일반교실의 경우 교과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학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칠판면이 교사를 향한 시야의 중심이 되므로 특히 전면 칠판이 있는 벽면과 창호가 있는 면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천장에서 바닥에 이르기까지의 반사율의 분포는 천장과 보가 80~85%, 창측벽 75~80%, 기타 벽 50~60%, 걸레반이 30~40%, 바닥 15~20%, 칠판 15~20%, 책상면 25~40% 등이 권장된다.

색상의 계통은 교실의 종류에 따라 변하기 쉽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는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난색계, 고학년 교실의 경우는 사고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한색계가 좋다. 또 여학생 교실은 난색계, 남학생 교실은 한색계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교실에 있어서는 이과계의 경우 관찰대상물의 색채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회색계, 미술교실의 경우도 색채를 다루기 쉬운 회색계, 음악교실의 경우는 감정을 솟구치게 하는 난색계, 조리교실의 경우 식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청결감을 주는 흰색이나 녹색(G)계열 등을 중심으로 하면 좋다.

칠판이 있는 정면의 벽인 경우 학생들이 칠판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칠판면과의 대비가 심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칠판의 경우는 주위보다 시선을 끌 수 있고 분필색과 명도대비가 큰 색채라면 녹색(G)이 아니라도 좋다. 명도는 사용 중에 5~6정도가 되므로 주벽의 명도는 6~7정도로 하면 적당하며 색상은 교실 전체의 색채계획에 따르되 채도는 2이하로 한다.

교실 천장면의 경우는 실내의 바닥면에서의 반사광과 함께 외부에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잘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무광택의 백색(명도 9.3정도)이 적당하다. 벽면의 경우는 정면의 칠판이 있는 면을 제외한 각 면의 명도는 8이상으로 하여 반사광의 이용률을 높여 조도분포를 균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바닥면의 경우는 창으로 입사된 빛을 교실 깊숙이 받아들이기 위해 반사율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 색상은 반사광이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YR부터 Y계통으로 하든지 무채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의 책상의 경우 바닥면의 많은 부분을 책상이 차지하기 때문에 책상면의 밝기나 색상은 단순히 학습의 작업면이 아니라 빛의 반사효과를 고려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시선이 칠판과 책상위를 반복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쪽의 밝기의 차는 작을수록 좋으며 보통 명도 6~7정도의 밝은 색으로 한다.

특별교실의 경우는 일반적인 색채조절은 일반교실과 별 차이가 없지만 특별실의 기능에 부합하는 재료와 색채의 고려가 필요하다. 미술실의 경우 물체의 색이 변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확산된 자연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광선의 방향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채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바닥면은 무채색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명도는 6정도가 적합하다. 과학실의 경우 전시물이나 약품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실험대의 경우 N5~6정도가 적합하다. 벽면이나 기타의 경우도 무채색에 가까운 채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음악실의 경우는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시끄러우면서도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색채 계획에 있어서도 색상을 YR~Y계통의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2) 공용 부분

강당의 경우 전교생이 모이거나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는 장소로서 시선을 쉽게 끌 수 있고,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색채계획도 변화를 주어 강한 색을 선택하여도 좋다.

강당 전면 벽의 경우는 일정시간 주시하는 곳으로서 눈부심을 주는 창문이나 대비가 강한 문양 등은 눈의 피로감을 가져오므로 고채도의 색상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벽 색의 경우도 강단에 서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명도 6~7정도의 따뜻한 색이나 연한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강당내의 의자의 경우도 고정식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채색을 사용하되 채도가 높은 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도서관의 열람실은 책을 전문적으로 보는 공간이므로 명시성이 높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접조명으로 계획하면 눈을 피로하게 하므로 조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부보다는 책상위를 약간 밝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도서관의 색채계획안은 <표 2>와 같다.

표 2. 도서관의 색채계획 안

	천장	윗벽	아래벽	책상	바닥
색상	Y~GY	G~BG	G~BG	BG~B	B~PB
명도	9	8	6~7	6~7	5~6
채도	0~1	1~2	2~3	1.5~2	2~4

3) 통로 부분

현관 홀의 경우 조도가 높은 외부에서 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내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조도차를 크지 않게 하기 위해 충분한 개구부를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내외부에서의 출입구의 인지를 위해서도 채도가 강한 색채를 사용하여도 좋다.

4. 병원공간과 색채

병원건축의 경우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설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특히 개개의 기능별 요구가 많아짐으로써 동선의 처리와 공간들간의 블록구분 등에 있

어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있다. 색채계획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능에 맞춰 여러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적합하도록 하는데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병원은 종래 흰색이 주조색이었다. 흰색은 청결감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나 한편 눈부심, 차가움, 소외감 등을 가지게 하는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므로 최근의 병원의 색채조절에는 일반적으로 피하고 있다. 또한 검정색의 철제기구나 기구도 압박감을 주므로 회색이나 옅은 회색으로 채색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병원의 색채계획의 기본방향은 개개의 기능요구에 적합한 색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잘 정돈된 색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을 각 기능권역별 나누어 보면 병동부,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서어비스부, 관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환자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병동부, 외래진료부, 수술실에 대하여서만 알아보기로 하자.

1) 병동부

병동은 입원환자가 진료받는 곳으로서 별실과 부속실로 크게 나뉜다. 병동은 진료목적외에 환자의 수면, 식사, 요양 등의 일상생활을 겸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감이 들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하여야 하므로 병원의 병실은 호텔의 객실에 가까운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병실은 진료과목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간호단위별로 집중 관리되고 있다. 병동은 이러한 간호단위의 기준에 맞춰 색상의 계통을 변화시켜 색채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내과계의 병실에는 침착한 한색계가 좋고, 외과계에서는 다소의 자극이 있는 난색계가, 장기 입원환자와 중환자를 수용하는 병실에서는 한색계, 경환자와 회복기의 환자의 병실, 산과의 입원실 등은 난색계가 좋다. 병실의 방향에 따라 남향의 병실은 한색계로 북향의 병실은 난색계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색채설계를 한다.

병실 천장의 경우는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환자가

많으므로 환자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된다. 따라서 장시간 바라보게 되므로 일반적인 공간과 같은 흰색은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벽과 조화하는高明도·저채도의 색채나 유채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색상은 10YR~2.5Y 정도, 명도는 8전후, 채도는 2이하가 좋다. 병실 벽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 공간의 느낌이 들도록 10YR~2.5Y, 명도 7~8정도, 채도 2이하가 적합하다. 병실의 바닥인 경우 대부분 침대로 가려지게 되므로 반사의 정도는 적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사용되는 린넨류와 붕대 등의 백색의 배경이 되므로 YR~Y, G로 하고 명도는 6전후, 채도는 4이하가 좋으며 재질면에서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청소하기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병실내에서 필요에 따라 침대와 침대 사이 또는 창문에 적당한 차광을 위하여 커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채도를 피하고 벽면과 같은 정도의 색으로 한다.

병동 부속실의 경우에는 간호근무실, 작업실, 처치실 등은 외래 진찰실에 준한 색채계획이 이루어진다.

복도의 경우 대부분 중복도의 형태로 복도 양측에 병실이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복도의 채광은 양쪽 복도 끝이나 중앙 홀 양면의 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상시조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족한 채광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 면의 색채는 밝은 색채로 하는 것이 요망된다. 천장의 경우는 흰색이나 흰색에 가까운高明도의 저채도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대부분 병실과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바닥의 경우는 쉽게 오염되므로 청소하기 쉬운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더러워지기 쉽다고 너무 어두운 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빛 반사가 심한 마감은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므로 테스츄어에도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2) 외래진료부

외래진료부는 진찰, 처치, 치료, 검사 등의各科 진료제실과 대기실로 나뉜다. 각 과별 진료에는 시진, 문진, 촉진 등의 진료 단계에 적합한 환경조성이 필

요하다. 특히 환자와 의사가 직접 접촉하는 곳으로서 색채계획상으로도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환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서도 안된다.

천장의 경우 흰색(명도 9이상)이 바람직하고 벽의 경우 환자의 배경이 되므로 GY~G가 적당하다. 산부인과나 소아과의 경우 환자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한 색채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벽면의 경우 Y~YR정도가 적합하다.

대기실의 경우 환자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머물게 되고 또 장시간 머물게 되므로 충분한 밝기와 변화 있는 색채계획으로 지루한 감을 줄이고 즐거운 기분이 들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식의 대기실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고 너무 활동적인 색채계획을 하면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벽면 색상의 경우 Y~R, 명도 8 전후가 좋고 채도는 활기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채도 3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3) 수술실

수술실은 정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므로 의사에 있어서 고도의 긴장 상태를 가져오게 하는 곳인 만큼 특히 시각환경에 유의해서 색채계획을 하여야 한다.

천장의 경우 빛의 확산이 좋은 재질로서 원칙적으로 흰색으로 하되 무광택으로 하여 현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질과 텍스츄어를 정하여야 한다. 특히 벽면의 경우 수술 중의 붉은 색의 피에 의한 잔상효과를 없애주기 위해 색채 계획시 보색인 BG로 하여 잔상에 의한 눈의 피로감을 없애주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벽면 색상의 계획은 이러한 시각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명도 8이상, 채도 2이하, 색상은 보색잔상을 고려하여 B, BG, G가 적합하다. 바닥면의 경우는 일반실보다 명도를 높여 6.5~7.5 정도로 한다. 채도는 상호 반사에 의한 상승효과를 고려하여 2.5이하가 되도록 한다. 색상은 벽면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BG, G계통으로 하였을 경우 혈액과 보색을 이루어 검정색으로 보여 불쾌감을 주게 되므로 BG, G계통은 피하고 2.5YR~5YR정도가 적당하다.

5. 상업공간과 색채

상업공간은 특히 색채효과를 중요시 하는 곳으로, 상품의 종류와 고객층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색채계획을 하여야 한다. 상업공간의 이미지별로 색채계획을 할 경우, 친근감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밝은 색을, 풍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색채이용을, 현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대비감이 큰 색채구성을,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호화로운 색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는 식욕을 증진시키는 색을, 미용실과 같은 서어비스업종에서는 공간의 편안함을, 물품판매점에서는 상품의 전시효과를 중시하는 색채계획을 한다.

그리고 상업공간의 색채연출시 조명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의 효과가 높다. ① 상품의 색채를 바르게 보여준다.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색채에 많은 가치를 둔 의류매장의 경우는 평균연색평가수 Ra=90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상품의 색채를 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여준다. 상품의 매력을 색채강조로 얻을려는 수법으로 매장을 신선하게 연출한다. ③ 색채의 상호반사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품과 내장재의 색채는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데 조명연출에 의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업공간의 색채계획은 간판 등의 사인(sign)부분과 건물의 전면부인 파사드(facade)부분, 그리고 매장과 창고나 주방 등 종업원만이 사용하는 간접영업부분으로 나누어 수행하여야 한다. 사인부분과 파사드부분은 옥외부분에 해당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매장의 실내공간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식료품 관련 상업

식료품 관련 상업에서는 다양한 종류별 식료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역별 색채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식료품은 눈에 띄기 쉬운 R, YR, Y, G, Ng 등의 선명한 색이 많으므로 배경색은 한색계

가 좋고, 검은색은 식료품을 산뜻하게 느끼게 한다. 또한 직접 배경이 아닌 천장이나 출입구 등에는 YR, Y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청과물점의 경우에는 상품이 과일이므로, 과일의 색이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GR, GY, R계통이 많으므로 실내의 색채는 이들 색의 보색인 B, BG, P 등을 사용하여 과일색의 선명도를 높이도록 한다.

과일의 신선감은 채도를 강하게 하여야 하므로 R은 BG계통이, 레몬이나 배 같은 과일은 검은 색이나 어두운 색, 포도 등의 어두운 색은 밝은 녹색 등을 배경으로 하면 좋다. 언제나 어울리는 색으로는 검은 색과 청록색(PB 2~3/2~3), 흰색과 회색(N1), 청록색과 회색(BG 5~6/1~2) 등이다. 그리고 청과물점의 조명으로는 백열등이나 백색형광등이 좋다.

표 3. 과일의 색과 배경색

과일종류	과일의 색	배경색
포도	5~7.5R3~4/6~10	GY~G
홍옥(붉은 사과)	5~7.5R4/8	G~BG
밀감	2.5~7.5YR6~7/10~2	G~BG, N
감	10R5/12~2.5YR0.1	G~BG, N
배나 레몬	6Y8~9/8~10	B~PB
푸른 사과	10Y~2.5GY7~8/6	R~RP
옥수수	2.5Y8/6~4	B~PB

식육점의 경우에는 판매품의 색채가 일정하므로 배경색도 단순하다. 예를 들어 신선함과 청결함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흰색은 유제품이나 냉동제품에 잘 맞는다. 육류는 흰색배경 뿐만아니라 빨강 톤에 파랑 강조, 또는 청록색과도 잘 어울린다. 특히 따뜻한 톤의 조명은 육류의 색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된다.

표 4. 육류의 색과 배경색

육류의 종류	육류의 색	배경색
쇠고기	5~10R3.5~4/8~10	G, BG
돼지고기	7.5R4~5/6~8	BG, B, R
닭고기	7.5R2.5Y5.5~6~7/4~6	BG, B, PB

표 5. 상품색과 배경색

상품 색 \ 배경 색	검은 색	흰 색	밝은 색	어두운 회색
Yellow	풍부하게 보인다	약간 둔해 보인다	더 따뜻해 보인다	더 밝아 보인다
Red	훨씬 더 화려하게 보인다	더 어둡고, 더 순색으로 보인다	밝지만 덜 간장되어 보인다	더 밝지만 깊이가 없어 보인다
Blue	더 밝게 빛나 보인다	풍부하고 더 어두워 보인다	약간 빛나 보인다	더 밝게 보인다
Green	창백하고 예리하게 보인다	채도면에서 더 깊게 보인다	노란끼를 띠게 보인다	밝고 회색이 붉은 끼를 띤다
Orange	더 밝게 빛나 보인다	더 어둡고 더 붉게 보인다	더 밝고 노란끼를 띤다	광택이 증가하게 보인다
Purple	강함과 광택을 잃는다	더 어둡게 보인다	더 밝고 배경색이 녹색끼를 띤다	회색이 녹색끼를 띤다

2) 음식점

음식점은 식욕을 느끼도록 배색하여야 하므로 식욕증진 색채를 사용하여 배색하는 것이 좋다. 식욕을 증진시키는 색은 난색계의 R, YR과 한색계의 BG이다. 단 BG의 경우, 청색이 너무 강하면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한편, 식욕을 감퇴시키는 색으로는 R~RP의 어두운 색은 고기의 부패를 연색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Y~GY 중 어두운 색, B~PB를 많이 포함한 색은 식욕을 감퇴시킨다.

제과점의 경우, 빵이나 과자는 R~YR~Y계가 많으므로 배경색은 BG~B, 검은색(N1~N1.5), 청자색(PB2/3~3)이 어울린다. 특히 특정제품만을 취급하는 제과점의 경우에는 상품이미지를 고려한 적당한 배경색을 선택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바닥마감재는 주로 더러움을 감출 수 있는 색채를 선택하며, 테이블보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테이블보가 손님의 시각에 미치는 중요한 색채요소가 되므로 음식점 전체의 색채와 관련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손님회전을 빨리 시켜야 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나, 검정, 회색, 강하고 차가운 색, 연두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조명 또한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따뜻한 색의 빛이 좋으며, 밝기는 고급 음식점에서는 조금 어둡게,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밝게 하는 것이 좋다.

3) 의류매장

의류매장의 구성은 파사드, 사인, 쇼윈도 등을 포함한 점두부분과 매장의 실내인 점내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점내부분에 대한 색채계획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의류매장의 색채계획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색채진열을 통한 정돈된 느낌을 주도록 한다. ② 유행색을 포함시킨다. ③ 대상고객에 맞춰 색채조절을 한다. ④ 배경이 되는 색은 두드러지지 않게 한다. ⑤ 색채에 따른 계절감과 조명효과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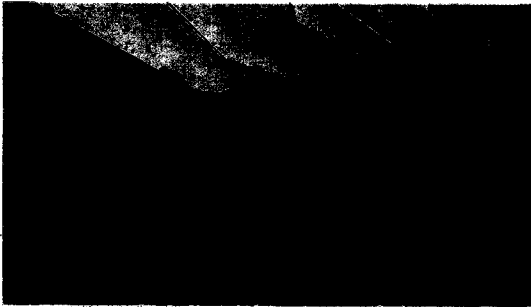
상품의 색을 정리, 분류하는 것은 매장 이미지 연출에 아주 중요하다. 상품의 색상배열은 따뜻한 색 ⇒ 차가운 색 ⇒ 중간색 ⇒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고 밝은 색에서 어두운색, 엷은 색에서 짙은 색을 좌에서 우, 앞에서 뒤로 이동하는 시각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그리고 상품의 색의 배경의 색에 따라 그 이미지가 달라지므로 상품색과 배경색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의류매장의 각 부분의 색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의 이미지

매장의 이미지에 따라 <표 6>과 같은 색채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매장의 형태가 좁고 긴 경우에는 양쪽 벽보다 안쪽의 벽을 더 짙은 색채로 하면 넓어 보인다. 그리고 매장의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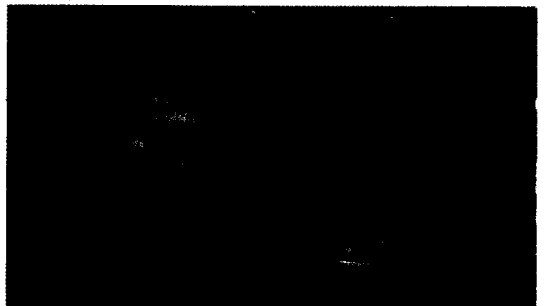
1. 무대를 향하여 강당의 좌석배치를 하고 동일한 색상이면서 톤을 달리하는 색채계획으로 구역,구분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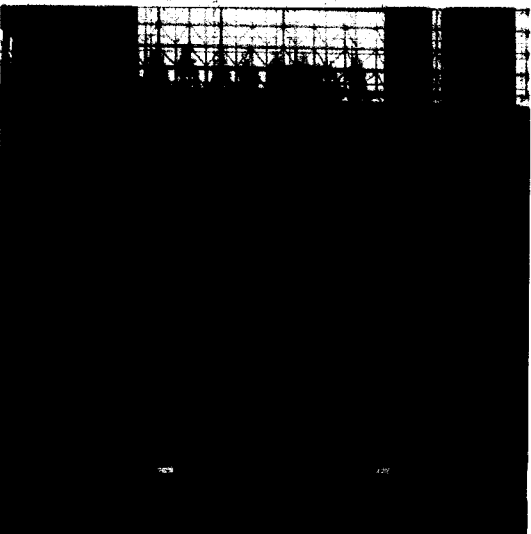
2. 다양한 색상이 전시되는 의류매장에서는 깔끔한 흰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디스플레이용 기발과 마케팅의 색으로 상품 색상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3. 젊은이를 겨냥한 레스토랑에서는 금속색과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렬함을 나타내며 전면부에는 다양한 색채 사용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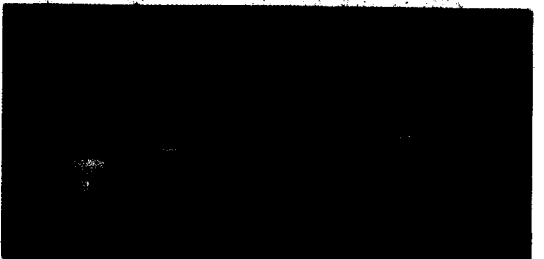
4. 차분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는 붉은 카펫으로 고급스러움을, 밝은 베이지색으로 깨끗함과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5. 높은 기둥을 세워 정중한 느낌을 주는 호텔로비는 다갈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있으며, 위를 향하는 벽면용 국부조명이 웅장함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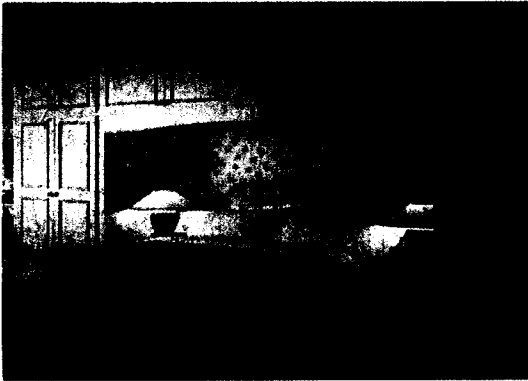


6. 깔끔한 느낌이 나도록 색채계획한 양식 객실



7. 중후한 느낌이 나도록 색채계획한 한식 객실

사진. 실내공간에서의 색채연출의 실례



8. 차분하고 깨끗한 느낌이 드는 주택의 침실 색채계획으로 사이드 테이블 위의 조명으로 국부조명을 하므로 은은함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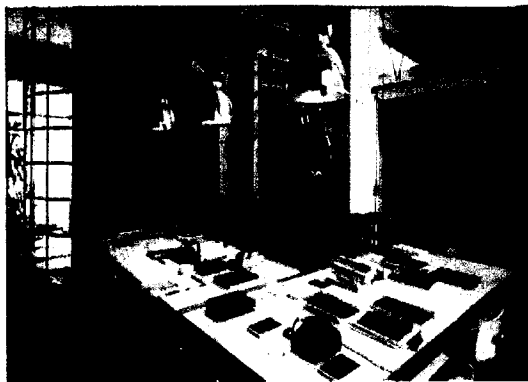
9. 따뜻한 느낌이 드는 붉은색을 풍부하게 사용한 거실의 색채계획으로 넓은 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 푸름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10. 선명한 빨간색으로 처리한 부엌가구는 흰색타일과 어우러져 따뜻함과 동시에 산뜻함을 나타낸다.



11. 청결한 백색을 주조색으로 한 욕실의 색채는 화려한 꽃문양으로 단조로움을 없애고 있다.



12. 단순한 작업을 하는 사무실에서는 무채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빨간색을 액센트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13. 대면형으로 배치된 회의실의 가구는 목재의 색상을 그대로 살려 중후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사진. 실내공간에서의 색채연출의 실례

표 6. 의류매장의 이미지와 색채계획 안

대분류	소분류	매장 이미지	색채계획 안
클래식 (classic)	포멀(formal)	중후, 형식적, 깊이가 있음	다크톤 갈색
	덴디(dandy)	이그제큐티브, 남성적, 풍부함	황금색, 칠기, 가죽재료
	엘레강스 (elegance)	고급, 풍요함, 화려함	우아한 색 계통
	로망(romance)	섬세, 우아, 세련	흰색, 파스텔 색
레트로 (retro)	레트로(retro)	중세의 화려함, 풍요, 하이테크	가죽, 금속소재, 흰색, 녹색, 소다유리
모던 (modern)	심플 모던 (simple modern)	단순, 명확, 도시 적, 지적, 세련	대담한 색, 타일
	소프트 모던 (soft modern)	부드러움, 따뜻 함, 합리적	다채로운 색, 평범한 재료
하이테크 (hi-tech)	하이테크 (hi-tech)	인텔리전트, 가라 앉은, 메카닉 기 계미	검은 색, 약간의 액센트색
포스트 모던 (post modern)	포스트 모던 (post modern)	대담, 장식적, 따뜻함	파스텔색, 핑크, 그린
	콘크리트 러프 (concreet rough)	인공소재의 멋, 삶음, 황량함	회색, 검은색, 거친 느낌의 소재
내추럴 (natural)	라이트 내추럴 (light natural)	밝음, 경쾌함	백목, 목면, 자연스러운 소재
	다크 내추럴 (dark natural)	깊이있는 매력, 수공예적인	참나무 종류, 스테인리스
	리조트(resort)	밝음, 개방적	유리, 삼베, 기타

매장 내부의 전체를 넓고 밝은 색채로 하면 넓게 보인다. 여성복매장은 의류의 색이 다양하고 여성의 색선호도 다양하므로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으나 상품색과 매장의 색상 차를 크게하여 호감을 갖도록 배색하는 것이 좋다. 남성복매장은 의복색이 여성복에 비해 단순하고 남성의 색선호도 여성에 비해 복잡하지 않으므로 각 상품의 근사명도를 피하고 적당한 명도대비, 색상 차가 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남성복매장은 갈색, 베이지색, 검정색, 흰색, 과관색 등을 주로 사용한다.

(2) 매장의 구조채

매장의 바닥은 벽면보다 짙은 색채를 사용하면 고객 기분은 침착하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짙은 색상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벽면은 상품의 배경이 되므로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상품이 강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주 밝고 엷은 색채를 사용하면 상품과 너무 동떨어진 느낌을 줄 수 있다. 천장은 낮은 경우에는 벽보다 훨씬 엷은 색으로 하고 높으면 전진색으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강한 반사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흰색이나 흰색에 가까운 밝은 색이 좋다.

6. 호텔공간과 색채

호텔은 숙소제공이외에도 오락적 요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호텔의 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색채계획의 방향은 달라진다. 호텔의 기본적인 구성은 로비를 포함하는 퍼브릭시설, 요식시설, 연회장, 객실, 관리시설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 숙박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며 호텔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로비와 객실의 색채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로 비

호텔의 로비는 손님들이 잠시동안 머무르지만, 이곳은 호텔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곳이므로, 호텔의 이미지색을 정하여 이를 주조색으로 하는데 색채가 효율성, 위엄, 고급스러움, 안도감, 오락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체로 전통적인 호텔은 어두운 톤의 목재와 대리석으로 견고함과 전통을 나타내며, 리조트 호텔은 고채도의 밝은 색과 흰색으로 비형식성과 여흥을 나타낸다. 그리고 로비의 공간형태가 아트리움식의 개방형인 경우에는 강한 색상의 고명도, 저채도 계획이 가능하나 단층식 폐쇄형의 경우에는 아늑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되 색채대비효과를 줄여 색채로 인한 협소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객 실

객실의 색채계획은 먼저, 모든 객실을 같은 색으로 계획할지, 객실 또는 객실층마다 다른 색채계획을 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반복하여 체류하는 손님에게 단조로움을 주지 않으며, 투숙객의 개인적 취향에 어울리는 방을 선택할 수 있다. 호텔의 객실은 손님의 임시 주택이 되므로 편안

함을 주는 색채계획을 하되, 기후와 방위를 기초로 하여 그 지역의 특징적인 색채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 손님의 평균 예상 체류기간에 따라 색채계획을 할 수도 있다. 손님이 짧게 머무는 시설이라면 좀더 공격적인 색채를 사용하여도 지루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며, 휴양지와 같이 대체로 체류기간이 긴 곳에서는 쾌적하면서도 평온한 색채가 어떤 손님에게도 거슬리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천장은 밝은 색 톤, 벽은 중간색 톤, 바닥은 어두운 색 톤으로 계획하고 그외의 가구와 침대는 액센트색으로, 조명은 파스텔 톤으로 계획하되 주조색에 의한 통일감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카펫의 주조색을 베이스로 하여 벽지, 커튼, 침대보, 가구, 조명기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색채계획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침대보와 커튼 등의 색은 고정적인 요소로 적용하기 보다는 강한 강조색을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유행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7. 전시공간과 색채

전시공간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특정 조형물을 전시할 목적으로 계획된 공간이다. 요즘은 환경조형, 설치미술 등의 명칭으로 옥외전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실내전시공간에 한정하기로 한다.

전시공간은 크게 주전시공간, 간접전시공간, 비전시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전시공간의 색채계획은 주로 주전시공간에 대하여 논하게 된다.

전시공간의 색채계획은 전시물의 내용, 전시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적으로는 전시물의 배경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전시공간의 색채계획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주제 성격에 맞추어 공간별로 지정색을 결정하여 계획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전시공간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주조색으로 계획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색채의 통일성을 얻기 힘들며, 후자의 경우는 단조롭기 쉽다. 전시공간의 전반적인 색채계획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실내색채의 구사는 중성화에 기본을 두되, 배

이지색, 암회색, 암청색의 범주내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는 무채색에 가까운 색이 무난하다. 예를 들어 회색(명도 6~7)이나 약한 채도(0~1)의 색을 택한다.

② 전시공간 구조체의 기본색상은 벽면은 고명도 또는 저채도로 하고 광택은 적도록한다. 바닥보다는 천장이 고채도, 저명도의 탁색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바닥의 명도는 6~7정도가 좋다.

③ 전시물의 배경색채는 연색성을 살리기 위하여 실내면의 상호반사가 없는 무채색에 가까운 색으로 한다.

④ 효과위주의 연출이 요구되는 전시물일 경우에는 연색효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전시물의 경우에는 자연스런 색의 연출을 위하여 평균연색 평가수가 100에 가깝도록 한다.

⑤ 전시물의 색이 강한 경우에는 배경은 무채색이나 둔한 색이 좋으며, 밝은 전시물인 경우는 벽은 어두운 중간색으로 한다. 전시물의 색이 무채색이거나 둔한 색인 경우에는 배경을 보색으로 처리하고, 작고 어두운 전시물인 경우는 밝은 난색이 좋다. 거울 등을 사용한 전시물은 약간 어두운 색으로 처리한다.

참 고 문 헌

- [1] 격월간 조명, 삼점의 디자인양식과 조명연출, 조명, 1992.
- [2] 안옥희, 이정옥, 박현, 김중자, 김상현, 생활색채디자인, 형설출판사, 1997.
- [3] 조성렬, 실내건축, 한림출판사, 1988.
- [4] 최영훈, 색채학개론, 미진사, 1990.
- [5] 황세옥, 실내디자인 총론, 세진사, 1995.
- [6] Faulkner, Ray Nelson, INSIDE TODAY'S HOME,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 [7] John F. Pile, 황연숙, 박부미 역, INTERIOR DESIGN, 국제, 1997.
- [8] Kenneth H.Mills & Judith E.Paul, Create Distinctive Display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4, p.86.
- [9] 小原二郎, インテリア大事典, 彰國社, 1991.

◇ 著 者 紹 介 ◇



안 옥 희(安玉姬)

1961년 11월 28일생. 1984년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졸. 1987년 日本奈良女子大學 주거학과(석사). 1990년 日本奈良女子大學 人間文化研究科(學術博士). 현재 영남대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당학회 사업이사.